

돼지열병·적조 ... '공포'가 밀려온다



“돼지를 지켜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돼지농장이 밀집한 나주시 노안면에서 지자체와 축협에서 나온 방제단이 농장 입구에서 차량들을 소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적조·돼지열병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바다를 일순간에 핏빛으로 물들이며 어패류를 집단 폐사시키는 ‘바다의 무법자’ 적조(赤潮)가 여수 해역 깊숙이 들어오면서 어패류 수확과 마리가 폐사했고 육지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발생하면서다. 특히 정부와 전남도는 중국, 베트남 돼지 농장을 휩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발생했음에도, 3개월이 넘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필요한 ‘울타리’ 설치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전남지역 농·어민들은 애지중지 키워온 돼지·양식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6면>

◇전남 유입 방지 ‘전전공공’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한 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됐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양돈농장 관리인은 전남 오후 6시께 숨겨 있는 어미 돼지 5마리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폐사한 돼지는 모두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도 파주서 국내 첫 발생
전남 580 농가 113만5000마리 사육 양돈농가 차단 ‘초비상’
여수 앞바다 적조 경보 ... 양식어류 24만3000마리 집단 폐사

고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치사율은 100%로 현재까지 마땅한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경우 580개 돼지 사육 농가가 113만5000마리를 사육중으로, 전국 사육량의 10%에 이른다. 전남지역 양돈농가들은 초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전남도는 이날 정부의 가축질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ASF 상 황실 24시간 가동에 들어가는 한편, 거점 소독시설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등 총력 방어태세에 돌입했다. 또 전남도 내 가축 등에 대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다. 발령 시간은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는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다. 특히 타지역 돼지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도 경계지역에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했다.

거점 소독시설도 기존 9곳에서 도내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또 축산 농가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일제소독에 들어갔다. 양돈 농가에 대한 임상 예찰과 소독도 강화하고 나섰고 양돈장 출입구부터 농장 전체에 담벼락을 치듯 생석회를 뿌려 차단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 출신 외국인이 근무하는 양돈 농가도 파악, 이들 외국인 근로자(441명)에 대한 이상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물고기 떼죽음...양식어가 비상=적조 경보가 내려진 여수 앞바다에는 죽은 물고기가 떠돌았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돌산대교 인근 우두리 해역을 비롯, 송도, 서외리 해역에서 12개 어가의 양식 어류 24만30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이들 중 보합을 든 농가는 5개 농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식어류 집단폐사는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적조 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여수 돌산 무슬목~상동 일대에서는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가 1㎡당 1200~1600개체가 출현했다. 적조 경보가 내려진 후 대부분 어가는 양식장을 옮겼지만, 인근에 남아있던 송어 양식장 등에서 폐사가 발생했다.

여수지역에서는 421개 어가가 224ha에 걸쳐 우럭·감성돔 등 어류와 전복 등 8400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다.

전남도는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 국립수산물시험원에서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방제작업에 나섰다. 전남도는 적조 특보 발령 이후 현재까지 선박 384척과 인력 1143명을 동원해 황토 2344t을 살포하는 한편, 어업인 8만4000여명에게 적조 발령 상황과 양식어장 관리요령을 SNS로 전파하며 피해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년(2009~2018년)간 5차례 발생한 적조 피해 규모가 593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어업피해액(4992억)의 12%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軍 경력 20년 이상’ 추가

위원 자격 완화 ‘5·18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1년 이상 끝었던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에 가속도 붙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광주일보 2019년 8월27일자 1면)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1년 이상 지지부진한 조사위 출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순위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조사위 출범 발목을 잡고 있는 조사위원 자격(제7조 제2항)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으로,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이 개정안에 대해 5월 단체 사이에서는 보수적인 군 출신 인사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면 5·18 진상규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적합한 인물 모색 난항을 이유로 위원 추천을 미루자 조사위 출범 시키기 위해 5월 단체들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은 “우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조속히 조사위가 출범하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예상되는 난관은 위원 제적·기피 조항을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공식 출범

수사권조정 입법지원 활동
조국 장관 ‘견제와 균형 원리’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년(2009~2018년)간 5차례 발생한 적조 피해 규모가 593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어업피해액(4992억)의 12%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레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는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검찰개혁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